

연중 제28주일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호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기도서 P. 457 C해
 제1독서 (열왕후 5, 14-17)
 제2독서 (디모후 2, 8-13)
 복 음 (루 가 17, 11-19)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오 현 택 신부

오늘 우리는 제1독서와 복음에서 진실한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요하는 세계 안에서 살아야 하고 믿음을 통하여서만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갖바어난 갖난아기가 엄마를 믿고 엄마 품에서부터 차츰 차츰 믿음을 성장시켜 이웃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켜 자기 생활을 펼쳐나가는 것같이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생활의 행복과 불행은 서로가 서로를 믿는 척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를 살도록 해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쫄한 허위공약 착취와 비리적인 악덕 경제인들—수많은 가짜 공산품들—믿을만한 사람도 물건도 없는 우리 주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하느님을 믿고 이 믿음을 이웃에게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진실한 사랑으로서만 심겨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조 아브라함의 믿음, 열왕들의 믿음, 예언자들의 믿음, 오늘 독서의 나아만의 믿음도 신약의 성모마리아의 믿음, 사도들의 믿음, 성인 성녀들의 믿음, 오늘 복음의 이교인 사마리아 사람 나환자의 믿음들이 한결같이 그들을 구원시켰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야고버 2장 14절) 이 행동은 희생과 감사로 표현됩니다. 나환자 나만의 신앙고백과 금은보화의 감사예물이나 나환자 사마리아 사람의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자부하고 믿음을 실천한다는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무엇으로 보여드릴지 반성합시다.

(김제 천주교회 주일신부)



공정(公正)한가?

우리는 가끔, 공정무사해야 할 경기의 진행과정에서 심판에 항의를 제기하는 소동을 볼 수 있다. 기계도 고장이 있어서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에 착오가 없을 수는 없다. 착오가 그야말로 단순한 착오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편파적인 고의성이 있다면 분명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위 텃세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심지어는 스포츠 중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몇일 전에 있었던 고교야구의 결승전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방팀(그것도 금년에 뼈아픈 고통을 느낀 지방의 팀)과 서울팀의 대결이었는데, 공정무사하게 중계해야 할 어나운서가 그만 흥분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방팀에게 뒤지던 서울팀의 홈인에 역량이 높아진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씩씩한 감회를 느껴야 했다.

어쩌면, 산다는 자체는 경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경쟁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 또한 그 규칙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규칙의 적용 역시 엄정해야 한다. 위와같은 조건에 어긋나는 모두는 완전히 무효이다. 만일, 어긋나는 조건인데도 그것을 강행하려는 어저지 권위가 있다면 그 사회에는 총화고 무엇이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자. 나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공정한가. 혹시라도 편에 빠져 있지 아니한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제자에 대한 관심도 그러하다. 있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편중도 그러하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 혹시라도, 일처가 지금처럼 요망되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은 없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숲 정이 산책



이런
· 이라크
· 상공의 피해
· 가시오



군 중 신 부

정 승 현 신부

1. 군중신부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한낮에 고개를 넘어 사방에 흩어진 부대들을 찾아가다 보면 고개마루에 나와 노는 새끼 꿩들을 만나게 된다. 다람쥐들이 쟁쟁게 길을 가로질러 숲 사이로 숨는다. 밤의 어둠을 뚫고 고개를 넘어올 때에도 새끼 토끼들을 만난다. 숲 속보다는 한낮의 태양이 따뜻하게 해놓은 길에 나와 노는 것이 좋은가 보다. 이곳은 고개가 많다. 고개 이름을 다 외울 때 쯤이면 전출 준비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눈이 한길로 쌓인 날 고개를 넘는다 것은 상상만 해도 싫은 생각이 든다. 처음 몇달동안 오토바이로 험준한 고개를 넘나들던 생각이 난다. 오르면 오를수록 주위의 나무들이 피운 눈꽃들은 한없이 아름다워지지만 오토바이 바퀴는 빙판길 언덕길에서 진땀을 흘리는 것이다. 그럴 때는 성모님께 매달리는 심경에서 성모송을 노래한다. 땀을 흘리며.

지금은 군중신부들이 전방 사단에는 모두 배치되어 있다.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적 조건은 이곳과 대동소이 하다.

2. 군중신부는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군중신부는 군인들에게 봉사한다. 간단한 이 한 마디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첫째, 군중신부는 군에 들어온 신자 장병들을 사목한다. 나아가 군중신부는 신자 아닌 군인 전부를 상대로 하여 그들의 인격지도교육, 정신교육, 종교교육까지 담당한다.

둘째, 군중신부는 이 나라의 내일의 주인공인 젊은 청년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조국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군중신부의 마음 속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사생관, 국가관, 인생관을 심어주기 위해 어느 곳에서나 어느 기회에서나 마음 속에 품은 이 뜨거운 열정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나라의 부름에 응해 군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생명력이 가장 강하고, 사고력이 가장 활발하고,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젊은 군인들의 인생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중신부의 정성어린 봉사는 가히 사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3. 군중신부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전방에서 군생활을 한 분들 가운데는 복무기간 동안 군중신부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럴 것이다. 이 젊은 군중신부가 모자라면 그 당시

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군중신부는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영세하고 들어온 군인들에게 최대한 봉사하려고 애쓴다. 1년에 적어도 서너번은(대축일에) 군중신부를 볼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토요일 특전미사와 함께 주일에는 3~4회 미사를 집전한다. 모두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성당이 없어 개신교 교회당을 빌려 미사를 봉헌한다.

다음으로는 예비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을 시키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매 미사후에는 단 10분이라도 예비자 교리를 실시한다. 군에서 영세한 신자들은 일년에 적어도 수십명에 달한다. 이들은 가장 훌륭한 영세자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젊은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일반 본당에서의 영세자들이 젊은 남자들보다 여자들과 나이드신 어른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군중신부는 모든 장병들에게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신자 지휘관의 배려에서, 아니면, 군중신부의 간청에 따라 수백명의 병력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들으며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역시 군중신부에 게만 주어진 특전이 아닐 수 없다. 어느 학생지도신부가 대학 캠퍼스 같은 곳에서 그렇게 많은 청중을 상대로 그렇게 자주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군중신부의 활동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군중신부는 무엇을 전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군중신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그 무엇이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 무엇이 참된 반공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들은 비그리스도적인(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은 무리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와 죽음, 불의와 부조리, 가난과 소외 등 온갖 억압으로부터 참되게 구원(해방, 해탈, 자유)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당장의 어떤 주의 주장에 급급하지 않고, 한결같이 단 한분이신 구세주를 반공의 일선에서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모셔간다. 비록 군중신부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달갑게 생각지 않거나 사안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십자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

(3면에 계속)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451 유율리안나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거북표·오리표·청자표 기타 싱크 총판

중 앙 종합 주방

가스렌지·가스기구·판매 일체

중앙성당 정문 옆 ④ 0841 공장 ④ 5621

김 정 기(안드레아)
박 윤 규(안당) 근배

8일 주교님 출국

—로마 교황청 방문 및 구라파, 동남아 교회 순방차

본 교구장 김주교님께서는 한국 주교단의 로마 공식방문 관례에 따라 교황알현을 위해 8일 출국하셨다.

주교님께서는 이번 공식적인 로마 방문을 기회로 본 교구 해외유학 신부 격려차 방문과 구라파와 동남아시아 교회를 순방, 사목적 협의를 갖고 11월 하순경에 귀국하실 예정이다.

긴 해외 여행중에 주교님의 건강하심과 좋은 성과를 이루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자. 한편 지난 7월에 성지순례 겸 유럽 교회시찰차 여행길에 오르셨던 김주교님께서 약 2개월간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시고 지난달 15일에 귀국, 여독이 채 풀리기도전에 바쁜 교구청 업무에 임하셨다.

그동안 기구중에 기억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고 부주교님께서는 그저 감사, 감사, 감사하시다고...

<2면에서 계속>

며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5. 군중신부는 누가 돕는가?

군중신부가 고립무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반 본당에서 처럼 사무장이 있고 수녀님이 있고 각종 액션단체가 있고 전교사가 있고... 많은 사목적 협조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병들이 받는 봉급은 봉급이 아니라, 생활에 요긴히 쓸 수 있는 용돈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군사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인적, 물적자원이 전무한 상태는 아니다. 장교회와 성모회가 있어 군인들의 영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뜻있는 신자들의 후원이 그치지 않는다. 주님의 일터에 일꾼과 비용이 모자랄 수는 없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당신 일터에 사람과 물자를 보내주신다. 물론 주님께 간청하기 때문이다. 군인들에게 들려줄 기도서와 종교서적, 로사리오 같은 성물들, 군중신부의 분신인 기동력(절차)—지금 타고 있는 절차는 군중단에서 지원해주었다. —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형제들을 통해 보내주신 선물이다.

군중신부는 구걸을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사용하기 싫지만 항간에서 쓰는 말이라서 적어본 것이다) 군중신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만행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실천을 깨우치는 것이다. 교구에 군중후원회(지회)가 자생적으로 생겼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의 마음에 들 것이다. 이 기회에 교구 군중후원회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6. 군중신부는 행복한가?

군중신부는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견하셨고, 어떠한 인간적 배려보다도 깊으신 당신의 사랑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 어느때보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일하는 자신의 처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느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한 시도 존재할 수 없고, 전혀 활동할 수 없음을 알고 참된 겸손으로써 주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군중신부는 행복하다.

요심이 (375) 김병호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④ 4448 · ⑤ 2176

◆ 오리표·백곰표 생크
보청기 가스기구 일체

동남 종합 싱크주방

동남 의료 과학 상사

김 낙 균(요셉)

전화 3-6900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맛의 전당

로타리 시식코너

(풍년제과 맞은편)

한식·경양식·분식·중화식·
튀김·주류

단체손님환영, 피로연, 회갑연,
야외도시락 환영 전화 ④ 6710

대표 이 승 준(방지거)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산·부기·타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김계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 타올,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월타올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④ 2849 · ⑤ 5612

업관실(베드룸)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을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제공예

주 이 협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담고약L·우진파스

주효능·신경통·근육통
전통·운동전후

◎부이리진

주효능·식욕촉진·발육촉진
영양장애

우진제약(주) 전북사무소

소장 이응우(비오) 군산 ④578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은 주교 시노드를 위한 기도의 날, 주교회의가 성공리에 마쳐지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1. 제 2 지구 예산 확대회의...14일<화> 오전 10시, 대야성당에서
 2. 대학생 정기총회...17일<금> 오후 5시 30분, 학생회관에서, 대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교구내 성지순례
주제-어두움에 빛을, 패-10월 18일(토)~19일(일), 장소-여산-천호공소(도보 순례)
참가대상-가톨릭 대학생 신자 및 관심있는 신자, 참가비-2,000원
에비도입-10월 14일(화) 5시 30분, 가톨릭 학생회관(덕진), 문의-덕진 가톨릭 학생회관(☎ 9449)
 4. 대학생 화요미사...매주 화요일, 5시 30분, 가톨릭 학생회관
 3. 잃어버린 물건 찾아가세요...순교자 현양대회시 전라선 기차에서 습득
지갑(현금 18,000원), 미사포(연락-장인동성당 사무실)
- ☐ 문학강좌 안내...10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이근배 시인, 주제-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업	기	봉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김	병	구

- ※ 젊은이들은 주일 저녁미사에 참석합니다
1. 꾸리아: 오후 2시, 강당
 2. 꾸리아 피정: 13일~15일, 광주 명상의 집
13일 12시까지 중앙 성당으로 집합하세요
 3. 능하신 성녀 L.M 1,000차 기념행사
12일 오후 2시, 꾸리아 회합후
 4. 청년 성가대 피정: 18~19일, 장소-고산 천호
 5. 남·녀 2, 3젠 모임: 장소-교리실, 오후 2시
 6. 청년 체육대회: 26일-해성학교
 7. 특별강연: 15일-가난한 자들의 권리, ※ 오후 8시
22일-양심을 일깨우는 자들, 예언자
29일-가난한 자들의 기쁨
※ 수요일 특별강연 11월부터 주일 저녁미사후로
 8. 저녁 미사시간 변경: 11월 1일부터 오후 7시
 9. 「군인성당 개축공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분께 감사
- ☐ 지난주 불헌금: 572,941원

7.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어린이 미사 3시
중고생 미사-매주일 오전 9시, 중고생들은 학생미사에 나오세요 부모님들 꼭 이시간에 보내주세요
- ☐ 지난주 불헌금: 291,810원
군인주일 특별헌금: 45,920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병	수

1. 축! 셋별 Pr탄생
첫회합 16일(목) 어머니 미사후(11시)
단장-윤수나나, 부단장-심테사
 2.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확인감사일: 15일(수) 오후 3시
사도회 임원님 참석 바랍니다
 5. 대학생 모임(안심도회): 12일(일) 오전 9시
 6. 다음주 전례담당
신자들의 기도-조동근, 독서-①오상팔 ②박장춘
- ☐ 지난주 불헌금: 141,410원 교무금: 29,400원

(노충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중	열
사도	회장	박	충	근

1. 수녀님들을 위한 성서 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까지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분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립의 간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성서 강의: 매주(월·화) 오후 8시~9시 까지
 5. 제10차 성령 세미나 개최: 20일~25일 까지
 6. 금주의 성령 읽기: 신약의 로마서 전체
 7. 아파트 지역 성령 세미나: 무사히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8. 어린이 도서 모집: 공소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기증해 주실 분은 보좌신부님께 상담하세요
- ☐ 지난주 불헌금: 217,931원

(윤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전교주일 특별헌금: 19일 협조 바랍니다
 2. 성모회 월례회: 10월 19일
 3. 주일학교 아동 4 지구 체육대회
10월 19일(해성학교 교정)
 4. 불헌금 밀리지 않도록 납부해 주세요
 5. 성당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신입하신 신축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6. 확인지도 감사: 10월 13일
 7. 신축기금 내주신 분: 송정일(5만원), 김양순(1만원)
삼배 최희장(10만원), 오창석(5천원)
- ☐ 지난주 불헌금: 149,59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조	정	오
사도	회장	양	상	열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사	유	석

1. 사도회: 10시 미사후
 2. 분당 지도 감사: 10월 15일(분과위원장 참석 요망)
 3. 자모회: 공식미사 후
 4. 장우회: 저녁미사 후
 5. 10월은 성모의 성월, 전교의 달입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19일
아침미사: 사회자-양현홍, 독서-최병래·이신희
공식미사: 사회자-서정옥, 독서-이덕수·박도식
저녁미사: 사회자-경양수, 독서-이승호·변해식
- ☐ 지난주 불헌금: 340,075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조	성	호

(파티마)

전화 ☎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채	수	현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분당 확인지도: 16일 오후 3시
사도회 임원들 참석 바랍니다
3. 성모상 가정방문 감사미사: 13일 오전 10시, 어응골
4. 불헌금 미수를 속히 완납합니다
봉투에 미수액 기재하였음
5. 전교주일(19일) 특별헌금 있음
회비-일반(500원 이상), 특별(2,000원 이상),
어린이(100원 이상)
6.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많은들 나와 배웁시다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4지구 단합대회: 14일 노충동 성당에서 오후 2시에
사도회 상임위원 빠짐없는 참석 요망
 3. 분당 확인지도: 16일 오전 10시
사도회 임원 전원 참석 바람
 4. 수녀원 신축 기성회장: 이교성, 총무-김용무
 5. 교리반 학부모님들은 토요일 오후 교리반에 자녀들
을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주 불헌금: 84,400원 교무금: 96,000원